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93호 현대불교
2010년 7월 21일(음 6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이것저것에 다 끄달리지 말고 용광로에 놔버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물질은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마는 마음은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또한 내 몸이어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보신이 항상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보신이 따로 있나? 십대 제자도 내가 가지고 있지, 오방신장도 내가 가지고 있지, 호법신장도 내가 가지고 있지, 화신도 가지고 있지, 뭐 모두 가지고 있잖아. 만약에 유전성이나 영계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탁 밀치면서 '야, 내 말을 들으려면 들어오고 내 말을 안 들으려면 들어오지 마라!' 이력하고서는 탁 잡으면, 불기만 하면 다 그냥 하나로 요리가 돼 버리니 그거 또한 묘한 법이라.

그러니 악은 악을 낳고 선은 선을 낳는데 '선과 악을 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닷물을 다 삼켜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무 욕심이 많았죠. 나부터도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도 욕심을 내려면 그런 욕심을 내세요. 왜? 내가 아무리 선을 추구해서 선을 닦고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어디쯤 가다가 보면 악도 범해요.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 악을 또 받게 되고 이러다 보면 윤회에 말려서 사생 속에서 좌전이 되거나 승진이 되어 돌아가면서 윤회에 끄달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휘달리겠어요. 그러니 선도 놓고 악도 놓으면, 악도 모으지 않고 선도 모으지 않는 거죠. 한 찰나예요! 선도 한 찰나요 악도 한 찰나. 그렇게 때문에 나는 두려운 게 없어요. 왜? 그렇게 한 찰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운전대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악도 한 찰나고 선도 한 찰나인데 운전할 때는 그저 악도 선도 다 놓고선 다시 거기서 생산해서 써라 이거죠. 용광로에 별별 쇠가 다 들어가지만 녹아서 다시 넓적하게 네모반듯한 철판으로 딱하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라서 그냥 생산을 해서 써라 이거예요. 굴러서. 그러니 이것저것에 다 끄달리지 말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기초적인 거는 여러분이 좀더 공부하세요. 벽을 치면 붓장이 울러듯이, 좀 아시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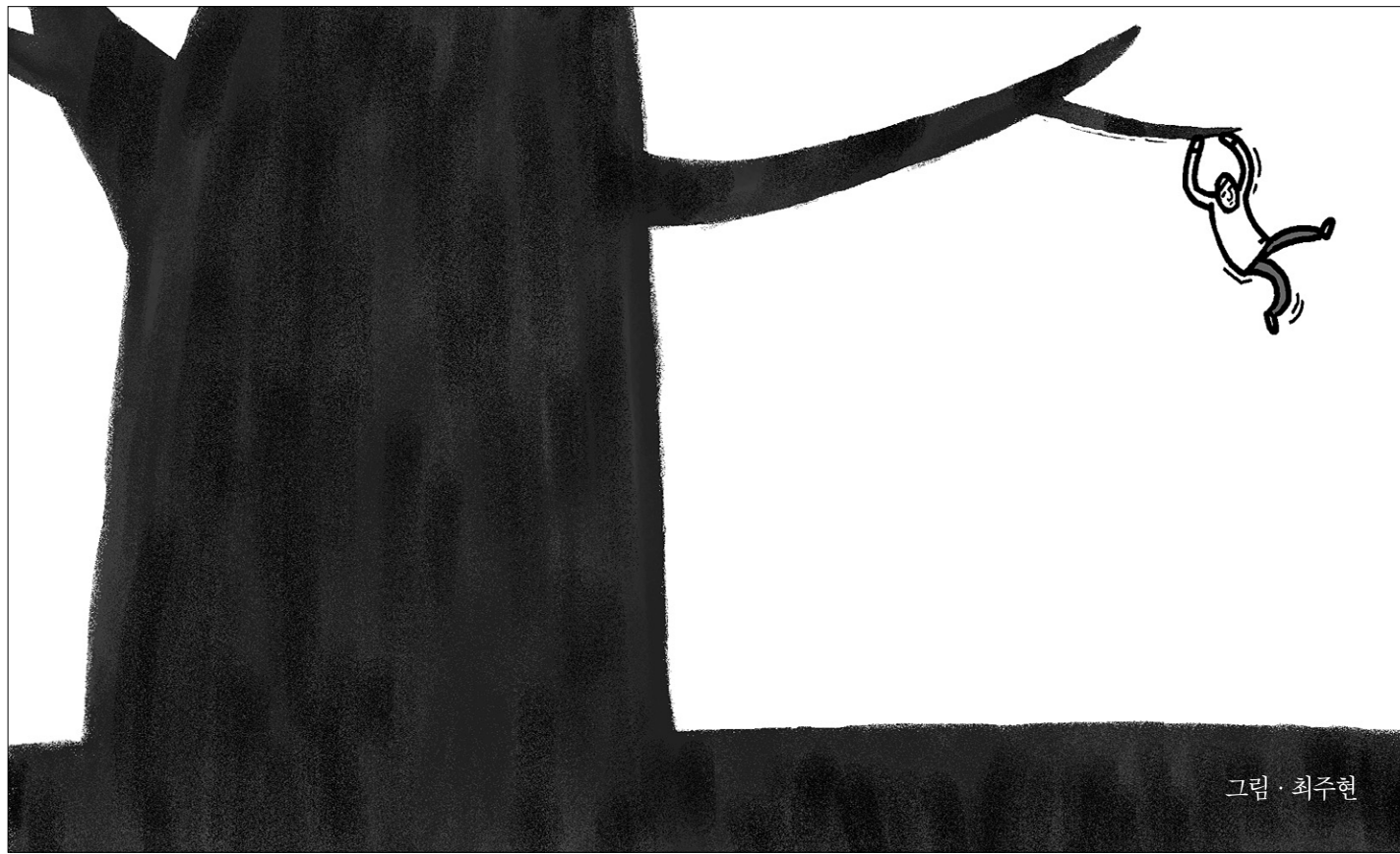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참, 요거 한마디 하고 갈까요. 또? 내가 한 소식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어린애를 낳아서 키우듯이 그렇게 키워야 어른이 되죠. 그렇듯이 내가 나를 낳고도, 터득을 했다 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건 발견한 게 아닙니다. 키워져야 발견했다는 뜻이 나오죠. 근본 자체, 그 참자기를 발견했을 때는 그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의 스승이 됩니다. 그런데 스승은 수억 겁을 거쳐 나와서 경향이 많아요. 이 몸을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려나까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요거 중요한 얘깁니다. 별짓 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쇠송을 할 때 일곱 번을 친다고 적혀 있다면 '넌 열두 번을 쳐라.' 요렇게 바꿔 놓습니다. 또, 한 번을 쳐라 그러면 두 번 치게 하고, 두 번 쳐라 하면 한 번 치게 하고,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가르칩니다. 그럴 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고 자기

를 다지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혜를 내나, 그걸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거든요. 이 마음의 스승이 어떠한 물질보다가 나오는가 하면 꿈에도 보이고 꿈에 말을 해 주기도 하고, 꿈에 좋다 나쁘다 이유 가 불기도 하고 또는 생시에도 나는 지금 저리로 가고 있는데 '저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스승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야 하는 것도 있지마는 내가 오관을 통해서 보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실에 내가 남한테 창피를 당하는 일이거나 누(累)가 되는 일, 즉 선원에 누가 된다기보다도 불가에 누가 되게 하고 부처님의 용호를 더럽히는 일, 그전에 나의 용호가 먼저 더러워지겠지만, 그러한 일은 하지 말고 또 놓아야죠. 그러니까 '저 사람 미쳤어!' 이런 소리 듣지 않고 공부하려면 이리로 가라 해도 '야, 날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구

나.' 하고 한번 생각하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다가도 '너 지금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거야.'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옳을 거라는 것도 의미를 모르겠고 영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데 그 때에도 '야, 이게 뭐냐?' 하고서 거기다 또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 자성불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얻어듣기 위해서 거기다 도로 팽개쳐 놔라 이겁니다. 네.

이 뜻을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부처님께 서도 수없이 자기를 부딪치게 했고, 수없이 모습 없는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자기가 거기에 속지 않고 항복을 받았고 자기라는 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 "풀 한 포기도 자기 스승 아닌 게 없으니까. 모두 내 스승이니까. 그것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공부를 어찌 했을까?" 하셨거든요. 또 부처님이 그렇게 그것들을 보고서 깨쳤으니 그들은 부처님을 보고 또 공부를 하게거든요. 그러니 어찌 물어볼까요? 그

러면 그렇게 속지 말고 공부해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옛날 얘기도 아니고 지금 얘기도 아니고 미래 얘기도 아닙니다마는, 꾸며서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허허허... 한번 꾸며 볼까요? 옛날에 어느 노승이 제자를 넷을 두고서 사시다가 열반하시게 돼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답니다. '아이구, 이것들이 아직 자라질 못했는데 내가 열반에 들어서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핑 돌면서 주르르 흐르더랍니다. 주르르 흘러서 푹 떨어지는 눈물을 한번 마음의 손으로 받아 보니 큰 금덩어리가 됐더랍니다. 그래서 그 금덩어리 하나를 놓고 사 형제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죽은 뒤에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가을 이파리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족하느니라. 그 나무 뿌리가 죽은 것은 아니니 너희 사 형제가 살면서 화목하게 지내거라. 이다음에 너희가 이 절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판데로 가게 되면 금덩어리를 서로 나누려고 할테니 그때 아무 데 있는 세 고개를 넘어가면 거기 삼촌이 계시고 법촌이 계시고 무촌이 계시니 그 무촌 스님한테 여쭙 봐라.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갈라서 화목하게 잘 살 수 있으리라."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네 형제가 법의 부모를 잃고 살다 보니까 엇같이 낫거든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이렇게 엇같이 하니 어떡합니까? "그러면 스님이 금 한 덩어리 남겨 놓으신 거를 나누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네 동강이를 내면 똑같은데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신 것처럼 삼촌 스님 계신 데 가서 여쭙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삼촌한테 가서 물어볼 땐 반드시 무촌 스님이 계시니라. 삼촌, 법촌 이렇게 비켜 놓고 무촌이 계시니 반드시 무촌께 여쭙 보면 바로 그 스님이 너희들을 가르쳐 줄 수 있으리라." 그러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가서 여쭙 보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나눠 가질 게 아니라 재산으로 그대로 두고 각처로 나가서 너희들이 벌여 오나라. 이거는 스승님의 재산이지 너희들 재산이 아

26면으로 계속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75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학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장,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8월 19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8월 20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이 재 진	051)632-4440 / 011-488-7745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해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